

나는 주식투자가 싫다

조준상

한겨레신문 기자

얼 마 전 마누라 생일 때였다. 가사노동 분담 문제로 한바탕 '푸다거리'를 한 뒤라 간만에 외식을 '땡길' 요량으로 '종달이' (스카이라크)라는 이름의 패밀리 레스토랑엘 갔다. 합박 스테이크와 안심 스테이크를 잘 나눠먹은 뒤 멋쩍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우리 마누라는 상당히 독한 데가 있다. 틀어지면 절대 먼저 말 거는 법이 없다. 언제나 사과는 내 차지다. 물론 쉽게 풀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마누라가 나를 또 화가 나게 했다. 느닷없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무려 150만원을 고객예탁금으로 맡겼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순간 먹은 게 체하는 줄 알았다. 마누라는 내일부터 한솔닷컴 주식을 사겠단다. 그래서 400만~500만원으로 불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다.

당장 찾으라고 했다. 물론 목소리는 착 가라앉혀서 말이다. 10여일 만에 어렵사리 이룬 화해(?)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품을 팔아야 되는 줄 아느냐, 애한테는 신경 안쓸거냐 등등 '당신이 주식투자를 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했다. 거기에는 '당신 남편은 주식투자를 싫어한다, 어떻게 할래'라는 식의 가부장적인 항목도 포함됐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말을 안했다. 나도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데, 그 건 마누라도 마찬가지일 듯싶어서다. 다음날 마누라는 고맙게도 돈을 찾아 은행에 넣었다. 그러면서 "본전 까먹으면 어떻게 해?" 한다. "이자가 조금밖에 안 붙는다"던 마

음이 바뀐 것이다. 나는 게 그렇게 '위험 회피자' (risk-averter)가 돼준 마누라가 고마웠다. 본디 마누라의 심성이 약한 탓도 있지만, 내 말을 별다른 불평 없이 따라준 탓이다.

그렇다. 나는 주식투자를 싫어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주식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완고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이 주식투자로 번 돈은 세금도 내지 않는 설정이다. 부유층의 '조세 회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체제를 끊임없이 훔들었던 이 이데올로기에 은연중 가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군가 나에게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고, 주식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 시켜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포기할 의향도 있다. 지난 해 한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에 강봉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나온다기에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모두들 주식투자는 '내맘대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아하게 표현하면 '주식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개인적 투자'라는 것이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그런 국내 주식투자인구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를 더해 335만 5천여명이나 된다. 국민 14명 가운데 한명꼴로 주식투자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주식투자는 '개인적 투자' 일 수가 없다. 그건 분명히 '사회적 투자'다. 비록 주식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의 '고독한' 결단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는, 거래소나 코스닥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 특히 상당수 생산직·사무직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주가가 올라 자산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걸 흔히 '부의 효과' (wealth effect)라고 한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소득이 늘어나고, 이것이 소비심리로 연결돼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를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은 고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IMF 사태 이후 대부분의 고용 증가가 시간적·임시적·일용적·파견직 등 비정규직 형태를 띠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 역의 과정이 시작된다. '공돈'을 벌기 위해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주가는 '뻥튀기' 되기 마련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미래의 파국을 부르는 행위이다. 그 파국은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 역시 기관투자가들의 밥이 될 테지만….

주가가 오르면 그 덕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이 되니까 먹을 봄다는데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한 개인의 삶이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자산소득의 증감에 좌우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것은 없다. 노동자의 삶은 임금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외국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가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게 그나마 인간적이다(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겠지만).

주식투자는 사회적 투자다. 지금 각자가 주식시장에 굴리는 100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카지노 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와 윤리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고독한' 시장은 없다. 모든 시장은 제도와 윤리 속에서만 존재한다. '주식투자는 사회적 투자'라는 말을 내가 완강히 고수하는 것도 결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지금의 제도와 윤리를 바꿔보자는 뜻에서 일지도 모르겠다.♦